고흥 유자 '수출효자'

中·日 등 유자차 인기 … 작년 4천만달러 수출

고흥이 주산지인 유자가 '발상 전환'으로 수출 효자 품목이 됐다.

유자는 IMF이후 마땅한 소비처를 찾지 못해 가격이 폭락했다. 지난 2000년 1만3천t을 넘는 생산량이 절반 수준인 7천여t으로 급감했다. 한때 3천147ha에 달했던 전남도내 유자 재배면적도 762.4ha로 75.8%나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유자가 아닌 유자차로 수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연간 수출 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00만달러를 넘어섰던 유자 수출실적은 2005년 1천117만달러, 지난해 4천57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822만9천 달러, 일본 518만9천 달러, 대만 113만3천 달러, 미국 7만7천 달러 등으로 중화권(中華圈)이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중화권의 인기몰이는 유자차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을 띤데다 '웰빙 차'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유자차를 튀김 요리 소스로 사용하는가 하면 빙수에 끼얹어 먹는 등 중국과 대만에서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

자생 유자가 있는 일본에서도 고흥산 유자 향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자즙 수출이 늘고 있다.

고흥군은 유자차 뿐만 아니라 유자한과와 유자 식초, 유자 술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은은한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유자 분재(盆材)도 시판하는 등 다양한 수요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유자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가격도 오르고 있다. 현재 10kg당 국내 유자판매 가격은 지난해 2만8천500원보다 2천500원 오른 3만1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고흥지역 유자재배면적도 2년만에 18ha가 늘어났다.

공창기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난지과수 담당은 "일본의 수입농산물 안정성 검사 강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친환경·무농약 유자 재배에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자차의 설탕량을 줄이고 포장 방법 개선,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고흥=대성수기자 dss@

유자차를 이용한 해외수출이 늘면서 국내 도매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산지인 고흥 풍양면 한동마을에서 유자 수확이 한창이다. /위직량기자 jrwi@

영광 칠산대교 내년 8월 착공

홍농읍~백수읍 연결 총 연장 2.2㎞

705억 들여 왕복 2차로 2012년 완공

영광군 홍농읍과 백수읍을 연결하는 칠산대교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국도 77호인 홍농읍 칠곡리에서 백수읍 구수리를 잇는 총 연장 2.2㎞의 칠산대교는 내년 8월 착공돼 오는 2012년 준공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내년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705억원이 투자될 칠산대교는 교각과 교각사이가 국내 최장인 320m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왕복 2차로(폭 11.5m)에 해상교량 590m와 교차로 3개소가 건설된다.

칠산대교는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고려해 곡면 주탑 2개소를 적용한 관광형 명품교량으로 설계됐다.

이 다리가 준공되면 영광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백수해안도로와 가마미해수욕장 및 법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상호간 접근성 제고로 관광객 유치 뿐 아니라 주민 교통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시설계에 따른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지난 13일 백수읍사무소와 홍농읍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영암 삼호읍에 국제 규모 테니스장

현대삼호重 건립 '현대테니스장' 개장 … 이형택선수 시범경기도

영암군 삼호읍에 국제 규격의 실내 테니스 운동시설을 갖춘 '현대 테니스장'이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립한 현대테니스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 코트 4면과 290여 석의 관람석,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앙투카 코트'는 습기에 강하며, 운동시 충격을 흡수해 케미컬 코트에 비해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부위 부상과 찰과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개관식 후 실내 테니스코트에서는 국가대표 이형택 선수의 시범경기가 열렸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앙투카 코트='어떠한 경우라도' 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된 테니스 코트. 적갈색 흙, 벽돌 가루 따위로 가공한 인조 흙을 사용해 배수가 용이하다.

보성 녹차밭 인근 대중골프장 짓는다

150억 투입 9홀 규모

보성군 회천면 녹차 밭 인근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녹차 밭 인근 32만 1천939㎡로 민자 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이다.

보성군은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연간 3억 원의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녹차밭, 일림산 철쭉 군락지 등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일대에는 지난 2005년 착공한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광산구 하남지구도 '365 민원봉사실' 개설

연중무휴 민원업무 지원

광주 광산구가 지난 3월 상무지구에 '365 민원봉사실'을 개설한 데 이어 하남지구에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민원지원센터를 연다.

광산구는 오는 30일 광산구 하남동 삼성 홈플러스 2층에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언제라도 민원지원센터'는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곳에 창구 2개와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해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 18종, 팩스 민원 320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하며 공무원 4명이 2개 조로 나뉘어 격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하남지구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다 주5일 근무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야간과 휴일 민원 수요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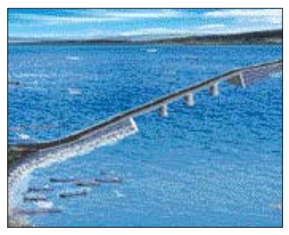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흥 안양면 사촌~장재도간

연륙둑 헐고 바닷물 통수

조류흐름 원활하게 교량 설치

2009년까지 갯벌 생태계 복원



조류 흐름이 차단돼 갯벌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던 장흥군 안양면 사촌~장재도간 간척지에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사촌~장재도 연륙둑 일부를 허무는 생태계 복원공사 완료를 앞두고 바닷물 통수를 시작했다. 〈조감도〉

지난 1960년 조성된 사촌~장재도 간척지는 연륙둑으로 조류흐름이 차단돼 연안 갯벌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흥군은 지난해 7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방 전체 길이 360m 중에서 120m를 없애는 대신 교량을 설치해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생태계 복원공사에 착수했다.

장흥군은 오는 2009년 1월 공사가 완료되면 연안 환경이 복원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고 한승원 문학산책로를 비롯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과 연계돼 관광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옴천 동백나무 가로수길 조성

개산리~정정리간 340주 심어

전국 최초로 면 전체가 친환경 농업지역인 강진군 옴천면에 동백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됐다.

옴천면(면장 김형배)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개산리~정정리간 도로변에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2m의 동백나무 340주를 심었다.

옴천면이 지난 9월 가로수 수종 선택을 위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백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백나무 꽃은 강진군 군화(郡花)로 지정돼 있으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병충해를 입지 않는 친환경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구례군 읍·면·직장인 족구대회

'제 1회 구례군 족구협회장기 읍·면 및 직장 동호인 족구대회'가 28개팀 선수와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중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임성신 협회장은 이날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도 다지고 군민화합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해남 탑 라이스단지 농림부장관상 수상

해남 탑 라이스단지가 최근 열린 '2007 전국 탑라이스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돼 이상철 대표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6년 조성된 해남 탑라이스단지는 엄격한 재배관리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현지 포장검사에서 높은 합격율을 보여 전국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특히 10a당 5kg의 질소 비료를 사용하고 병해충 방제도 단 2회로 줄이는 등 생산단계의 엄격한 관리로 생산량 증대는 물론 최고급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탑라이스 이상철 대표는 지난 2003년 해남지역 최초로 종이멀칭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